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모음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① A 학생 (1.77순위)

i) 교과 성취도

이수단위 136 | 평균재적인원 112

이수 교과	과목 수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4	1	1	1	1
영어	4	1	1	1	1
수학	6	1.08	1	1	1.25
사회	3	1.17	1	1.6	-
과학	10	1.57	2.12	1.21	2
예술 · 체육	6	-	A	3.1	A
생활 · 교양	6	-	P(1)	1.5	P

- 사회 이수과목 : 세계지리
- 과학 이수과목 : 융합과학, 화학 I, 화학 II, 화학실험,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생명과학실험, 지구과학 I

ii) 고교 공통정보 요약

- 경남 소재 일반고

iii) 교내 수상

독서토론대회 최우수상(1위)	2018.07.20.
수학개념탐구한마당 최우수상(1위)	2019.08.19.
Essay Writing Contest 우수상(2위)	2020.08.14.

iv) 자기소개서

1. 학업노력 및 학습경험

[학교생활기록부 발췌]

- 함수의 그래프 해석하기 활동 중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치아 우식증 환자의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고 치아 우식증 환자의 수의 증감이 불규칙함을 관찰함. 치아 우식증 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다양한 자료를 찾으며 음료 섭취 시간 및 종류가 치아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다는 소감을 발표함
- 효모를 이용한 발효실험 수행평가에서 주어진 실험 외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젖산발효 실험과 맥주 효모를 이용한 비교실험을 추가로 진행함
- 교내 'Forum on UNESCO'의 대주제(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_건강한 삶과 웰빙)에 대해 '소외질병에 대한 연구를 촉진할 사회적 방안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료 시스템'으로 하위주제를 정해 공동 발제함. 주요 내용으로 소외 질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료 시스템에 대해 논제를 정리하였으며,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물과 건강, 식량과 건강, 의료와 건강에 대해 다루었으며, 소외질병에 대한 연구를 촉진할 사회적 방안으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유인, 공동개발 환경 조성, 인공지능과 페노믹스크린 등의 신기술의 이용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장애인 의료복지 개선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장애인 치아건강 관련 기사문을 읽고 분석, 정리함. 특히 기자는 보건복지부의 2016년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을 시각적으로 비교,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가 낮음을 알리어 기사문의 타당성,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함. 또한 2011~2015년 치아관련 질환과 각 시도별 65세 이상 장애인 치아우식증 진료 현황의 통계자료에서 전체 치아우식증 대비 장애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의 치아우식증의 증가율을 각각 계산하여 그들의 구강위생 상태의 심각성을 전함. 이에 대한 나름의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방향으로 양치습관의 중요성 홍보, 활동보조인 대상 장애인 구강교육 및 장애인 치과병원 확대 등을 제안함 · 진료 발표에서 '치매 약을 통한 치아 재생'에 대해 발표하여 진료와 관련된 이슈를 동아리 부원들에게 소개하였음.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목적이었던 디데글루신이 치아 중심부의 줄기세포를 자극하여 거치는 과정을 통해 치아의 상아질을 복구함이 발견되었다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발표하였음
- 동아리의 부장으로 평소 궁금했던 양치 직후 구강청결제의 사용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를 작성함. 자료 조사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치 직후 구강청결제의 사용은 치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구강청결제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깨닫고 기사를 통해 이를 전달함 · '청각장애인과 구강 위생'이라는 주제로 발표함. 청각장애의 정의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려움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함. 청각장애와 구강 위생 상태의 관련성을 다룬 논문에서 청각장애인의 구강 위생 상태가 비장애인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고 그 이유가 궁금하여 관련 자료들을 찾아 정리함. 청각장애인들은 대화를 통한 적절한 입과 혀의 운동이 불가능하여 구강 내 이물질이 오래 남아 있다든지 치과진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치료에 협조적이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소개함
- 시사이슈 찬반토론에 "청소년 처벌강화"와 "최저임금제"에 대한 시사이슈 찬반토론에 참석하여 성실하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이 살아있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최우수 토론자로 선정됨
- 전공적합성 함양을 위한 양방향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생물학적 인간'을 주제로 매주 소주제별로 내용을 요약한 후 발표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짐. 동물들의 입체 및 양안시야, 입천장의 주름구조, 혈액, 폐 기능 검사 등을 탐구하면서 생물학적으로 바라본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지식을 갖추며 '얼굴은 무엇인가', '눈은 왜 항상 입보다 위에 위치하는가' 등 근본적이지만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희망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가짐

[자기소개서 발췌]

1학년 수학시간 함수의 그래프 해석하기 활동에서 국가통계 포털사이트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치아 우식증 환자의 수'에 대한 통계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분석했습니다. 불규칙한 증감을 나타내는 치아 우식증 환자 수에 대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은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는 교과서의 그래프를 분석해 식으로 나타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고, 이는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치아 우식증의 원인에 대해 공부하고 그에 대한 논문을 찾아 읽은 후 치아 우식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계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각 연도별 구강위생 관련 교육 현황', '각 연도별 인구수'를 나타낸 통계자료를 선별해 그래프로 나타내고 각 그래프의 증감 경향을 치아 우식증 환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각 요인들이 정말 치아 우식증 환자 수의 증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신뢰할 수 없는 분석이라고 느꼈습니다. 명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았고, 책 '통계학 도감'을 통해 제 궁금증을 해결할 '상관계수'의 개념과 공식을 찾았을 때는 '이거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장 실행에 옮겨 치아 우식증 환자 수와 인구수의 각 연도별 편차를 구하고, 각 변수에 대한 편차의 합을 공식에 대입하여 환자수와 인구수의 상관계수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약 0.51의 상관계수를 도출해 '인구수는 환자 수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도출 후 통계학 강의를 들으면서 잠복변수에 의해 허위상관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배웠지만 연도의 영향을 배제하는 과정이 어려워 유의미한 분석 결과인지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그래프를 단순히 현상의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요인들을 살피려는 시각과 가설을 설정하고 확인해 결론을 얻는 것으로부터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의미있는 활동

비슷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과 조를 이뤄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진로독서 프로그램에 2년간 참가했습니다. '어떤 의사가 진정 환자를 위한 의사인가?'를 주제로 한 토의는 앞으로 어떤 의료인이 될 것인지 분명한 목표의식을 다지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2학년 진로독서 활동에서 '차가운 의학, 따뜻한 의사'를 읽었습니다. 따뜻한 의사를 말하고 있는 이 책은 환자와 의사간 공감과 소통을 통한 유대관계 형성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1학년 때 읽은 '닥터스 씽킹'에서 얻은 교훈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닥터스 씽킹'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두 책을 모두 읽은, 의료인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환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감정을 개입하는 의사'와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감정을 배제하는 의사' 중 어떤 의사가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이를 주제로 토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감정 개입과 감정 배제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가려내려 하였으나 의견을 나누면서 환자와의 관계 형성과 객관적인 판단 중 어느 것 하나를 택할 수는 없으며, 의료 행위에서 감정은 언제 개입시키느냐에 따라 이롭기도 해롭기도 한 '양인지검'과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진정 환자를 위한 의사는 소통과 공감으로 환자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판단의 순간에서는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의사라는 것을 배웠으며, 이는 곧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의료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2년간의 진로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을 나누며 의료인으로서의 꿈과 목표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중 '건강한 삶과 웰빙'을 선정해 '소외질병에 대한 연구를 촉진할 사회적 방안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료시스템'을 주제로 유네스코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열장 분

량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 준비까지 마쳐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포럼 활동은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소외질환의 실상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풍토병의 형태로 발생하는 소외질환은 11년간 승인된 신약의 단 4퍼센트만을 차지할 정도로 제대로 된 연구나 신약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함께 포럼을 준비하는 선배와의 토의를 통해 이 문제는 소외질환이 가지는 낮은 경제성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경제적 유인책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탐구를 하면서 빌 게이츠의 에이즈 프로젝트 지원, DNDi의 공동 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비용 절감, 인공지능과 페노믹스크린을 이용한 임상 시험 축소 효과를 접하고는 소외질환은 발병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신기술을 이용해 전 지구적인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포럼을 이끌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며 더 나은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3. 학교생활 사례

'꿀벌이 멸종하면 4년 뒤 인류도 사라질 것이다.' 생태계에서 꿀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런 꿀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2학년 2년간 동아리에서 도시 양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옥상에서 양봉을 한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거나 신기하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벌은 자신을 쏠 수도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런 벌을 학교에서 기른다는 것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꿀벌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현상과 그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호에 일조하고자 했던 일이, 본교 학생들에게 외면 받는 채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동아리에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꿀벌이 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자 부정적인 존재인 것은 꿀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회와 동아리가 연합해 진행하는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 참가하여 본교 학생들에게 꿀벌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허니데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당일, 학생들이 부스를 넘어서서 길게 줄을 설 정도로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동아리에서 직접 채밀한 꿀이 정말 맛있다는 평판을 치켜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도시 양봉의 긍정적인 의미가 동아리 내부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본교 학생들과 함께 나누며 모두에게 뜻깊은 경험을 선사해 준 것 같아 더욱 의미있었습니다. 행사 이후 학생들은 꿀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라면 학급에 벌이 들어왔을 때 무서워서 피하며 빨리 벌이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렸던 친구들이, 허니데이 행사를 통해 벌에 대해 잘 알고 난 후에는 벌이 들어와도 태연하게 '○○○○ 너네가 키우는 벌인거 아냐?'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얻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 가치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고 인식을 바꿀 정도로 큰 작용을 하며 그것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4. 독서활동

보이지 않는 이야기 (조현대 저)

프로젝트 수업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계단에 맞선 경사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 이 책을 읽었습니다. 평소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시각장애인인 작가님이 책에서 펼치는 이야기는 그런 저의 생각을 반성하게 해주었습니다. 비장애인은 생각하지도,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작은 차이가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혼란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나 버스의 하차벨과 입식봉의 위치가 버스마다 달라 평소 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이야기

는 머리를 때리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함을 깨달았고 그를 위해 더 세심한 태도를 갖추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복지에서 계층별 차별과 격차를 줄이는데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열두 발자국 (정재승 저)

평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이 많아 친구들에게 결정장애가 있다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다 심리학 수업에서 결정장애의 원인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이 기회에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타파해 보고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결정장애는 결정의 순간 공황이 발생하는 심각한 질병이며 저의 성격은 그보다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성격 또한 의료인을 꿈꾸는 저에게는 고쳐야 할 문제였습니다. 의료인에게는 매 순간이 판단의 연속이고, 그 판단이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책에 나오는 '메멘토 모리'를 실천했습니다. 점심 메뉴를 정하는 사소한 일부터 대학을 선택하는 중요한 일까지, 이 결정이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라면 어떻게 할지, 최선의 결정은 무엇일지 생각하며 결정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치과의사가 되었을 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이로운 꿀벌의 세계 (위르겐 타우츠 저)

동아리에서 도시 양봉을 하면서 꿀벌의 특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꿀벌 군집을 하나의 포유류 생명체로 인식할 수 있다는 관점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꿀벌 군집에서, 일벌은 생명 유지와 소화, 여왕벌과 수벌은 각각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를 담당하여 꿀벌 군집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꿀벌 군집의 활동은 마치 분업이 잘 된 모듬의 활동을 보는 것 같았고, 이를 적용해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구성원의 특성과 장점에 맞게 역할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꿀벌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모듬 활동이 있을 때면, 구성원 개인의 특성과 잘하는 것에 집중하여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라디오 드라마를 제작할 때, 각 역할에 맞는 친구를 이유와 함께 추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팀 내 분위기가 더욱 좋아져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꿀벌의 특성을 통해 협업을 배우고 직접 적용해 볼 정도로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② B 학생 (1.94순위)

i) 교과 성취도

이수단위 140 | 평균재적인원 176

이수 교과	과목 수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4	1.64	1.5	2	1
영어	4	1.34	2	1	1
수학	5	1	1	1	1
사회	3	2.18	2.21	-	2
과학	6	1.54	1.1	2	1
예술 · 체육	5	-	A	A	3
생활 · 교양	7	-	P(1.5)	P(1.5)	P(1)

- 사회 이수과목 : 정치와법
- 과학 이수과목 : 화학I, 화학II, 생명과학I, 고급 생명과학

ii) 고교 공통정보 요약

- 전북 소재 자사고

iii) 교내 수상

3분 스피치대회 은상(2위)	2018.06.21.
유전 · 생리학탐구대회 동상(3위)	2019.07.18.
원자 · 분자탐구대회 은상(2위)	2020.09.01.

iv) 자기소개서

1. 학업노력 및 학습경험

[학교생활기록부 발췌]

- '실내환기의 중요성'을 주제로 자유탐구활동을 진행함. 미세먼지 관련 통계자료를 근거로 실내환기의 중요성과 그 효과, 효율적인 실내환기법을 소개하며 실내공기오염에 따른 질병을 정리하여 친구들의 관심을 유도함. 실제로 로그를 이용하여 실내 산소 농도 구하기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로그의 쓰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
- 의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수학과와의 접점을 찾던 중 컴퓨터 단층촬영을 찾아내어 'CT와 적분'을 주제로 탐구 활동을 진행함. X선 촬영과 CT의 차이를 설명하며 컴퓨터단층촬영의 원리를 예시를 들어 이해시킴. 2차원의 그래프를 조합하여 3차원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단층촬영의 기법과 필요성을 소개함. 몸 안의

밀도를 측정하여 영상으로 남기는 이 촬영방법으로 충치가 생겼을 때 치아의 밀도가 달라져 이것을 진단할 수 있음을 발표하여 자신의 진로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드러냄

-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화학 I 에서 학습한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 화학 II 교과를 선택하여 이수함
- 중추신경계 이상 질환인 알츠하이머에 대해 탐색하던 중 구강 세균과 관련이 있다는 기사를 읽고 관련 논문과 기사 등 자료를 조사하여 구강 세균이 영향을 끼치는 전신질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구강 관리와 전신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 발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우들의 이해를 도움 · 신체에서의 방어 작용에 관심을 갖고 비특이적 방어작용 중 타액의 기능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 교내 응급처치 동아리의 회장으로 여러 곳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이론 및 실기 능력을 보유한 학생임. 체육 수업 시간만으로 응급처치를 교육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담당교과 선생님과 상의하여 각 반 응급처치 멘토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업시간 및 점심시간에 자치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함
- 화학 시간에 아스피린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스피린 합성실험을 주도함. 단계별 과정을 직접 시연해 보이며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조원들의 이해를 도움. '물로 피우는 불' 실험을 기획한 뒤 팀장을 맡아 실험을 주도함. 여러 번의 모의 실험 후 화학약품의 가장 이상적 배합과 성공적 실험 원리를 찾아낸 후 조원들에게 직접 실험을 통해 타오르는 불꽃을 보여줌
- 진로 시간을 활용한 '진로 탐색 심층보고서' 작성에 참여함. '뇌 노화를 멈추려면 35세부터 치아관리 습관을 바꿔라'는 책을 읽고 건강한 치아관리가 뇌 노화를 늦춘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느껴 치아 개수와 치매와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함. 뿐만 아니라 올바른 치아 관리법을 조사하며 예방치학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됨

[자기소개서 발췌]

기숙사 생활을 하며 자습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 새벽에 잠이 드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잇몸이 자주 부었고, 칫솔질을 할 때면 아프고 피가 났습니다. 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친구들도 알게 되었고, 이전에 치과 진료 후 의사 선생님께서 새벽이라도 자기 전엔 꼭 칫솔질을 하라고 당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짧은 수면시간임에도 왜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지, 왜 새벽에도 이를 닦고 자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화학 공부를 하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산과 염기반응을 공부하던 중 치아 우식이 산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배우며 이 원리가 새벽에 이를 닦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과학 자유 탐구주제를 치아 우식으로 정했습니다. 자료 조사를 위해 예방치학, 구강미생물학 등 책을 읽은 결과, 치아의 수산화 인회석이 산에 의해 파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 중에는 타액의 적은 분비로 인해 자정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구강 내 pH농도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여 치아 우식이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소 도포를 하면 수산화 인회석의 OH기가 F원자로 치환되면서 재광질화가 일어나 법랑질이 더욱 단단해져 우식이 예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아 우식의 원리를 알고 나자 자기 전 칫솔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치아 우식의 발생 과정과 원리, 예방법을 친구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하였고, 기숙사에서 자기 전 칫솔질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공지를 붙여놓기도 하였습니다. 치아 우식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 고민해보고 탐구해본 경험을 통해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했을 때와는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던 화학 과목을 관심 분야인 치의학에 적용시켜 심화 탐구하는 과정은 화학2를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고 화학 과목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해주었습니다.

2. 의미있는 활동

응급처치 동아리에 들어가 응급처치 일반과정을 이수하였지만 응급상황을 직접 겪어 본 적이 없어서 활동의 유용성에 대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생각을 뒤집어 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학년 2학기 수학 시험 중 같은 반에서 시험을 보던 선배가 발작을 일으켜 쓰러진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동아리에서 배운 대로 빠르게 발작으로 인해 다칠 수 있는 물건들을 치우고 선배의 입에 옷으로 감싼 펜을 물려 혀 손상을 막아 선배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응급상황이 일상에서 언제나 발생 가능하며, 응급처치 지식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원들과 응급처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였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내 응급처치 대회를 기획하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대회 당일에 많은 학우들이 참가하여 응급 처치 법을 배우고 시연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 학교가 '어떤 응급상황에서도 안전지대'라는 자신감과 함께 동아리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을 앓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수업 중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후에 선생님께 여쭙보니 그 날 약을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제야 매일 약을 챙기는 번거로움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선생님과 같이 심혈관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약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응급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원들과 약을 넣어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생명캡슐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후 선생님께 생명캡슐에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키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어 드렸고, 파라코드로 만든 목걸이에 달아 휴대가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생명 캡슐을 만들며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참의미와 환자 스스로도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명 캡슐이 유용하다는 선생님의 감사인사를 받고 진실성 있는 활동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학년 때 학급에서 학습 부장을 맡으며 모두가 참여하는 점심 자습시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학급 안에서도 점심시간에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과 쉬고 싶은 친구들 간의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저는 불만을 무조건 통제하기보다는 학급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학급회의 결과, 자습을 원하는 학생과 쉬고 싶은 학생의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의논을 통해 점심시간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는 유지하되 대화는 복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친구들이 학급회의 결과를 잘 지켜준 덕분에 점심자습시간은 원만히 운영되었고, 저희 반의 학습 분위기가 좋아지자 다른 반 친구들도 찾아와 점심자습에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엔 점심 자습시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방적인 통제는 오히려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갈등 해결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또한 진정한 '자율'의 의미는 서로를 배려하는 의사소통과 규칙을 지키는 모두의 노력 속에서 가능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3. 학교생활 사례

2학년 때 학교대표로 ○○ 응급처치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시연을 위해 매주 주말과 동아리 시간마다 심폐 소생술과 삼각건을 이용한 상처 처치를 연습했습니다. 동아리 회장으로서 저는 전국 응급처치 대회 우승이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연습에 할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던 중 한 명의 팀원이 대회 연습 시간을 못 지키겠다며 다른 회원으로 대체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응급처치 대회는 팀원 4명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진행된 상태에서 한 명이 빠진다는 것은 매우 큰 타격이었습니다. 또한 팀원의 이탈 문제가 발생하자 다른 팀원들도 동요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팀원들이 연습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쉬는 시간을 활용하던 연습 시간은 팀원들에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과욕으로 팀원들끼리의 의사소통이 부재했던 점과 팀 공동의 목표 설정 과정이 부재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저는 팀장으로서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연습 시간과 공동 목표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중 연습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정했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연습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팀의 목표를 무조건적인 우승보다는 실수 없는 즐거운 대회로 설정하여 서로의 부담을 덜기로 하였습니다. 팀원들 사이의 약속이 생긴 후 팀원들도 전보다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팀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하나 된 팀이 되었고, 대회 결과에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팀의 의미와 협력과 소통의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선 팀원들과 함께 걸어가며 팀원들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4. 독서활동

입속에서 시작하는 미생물 이야기 (김혜성 저)

신문 칼럼을 읽다 구강 내 진지발리스가 분비하는 진지페인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강내의 균이 어떻게 뇌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칼럼 저자가 쓴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구강관리를 '미생물 관리'라는 단어를 쓰며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치료의 의미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구강 내 수많은 미생물들은 뇌뿐만 아니라 폐, 심혈관, 소화관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치과 진료가 단순 구강 치료가 아닌 전신 건강을 위한 치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막으로써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구강질환과 전신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치의학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치의학 교수가 되어 국민들의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 형성에 힘쓰고 구강질환 예방법을 연구하는데 선구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화학물질에 중독되는가 (로랑 슈발리에 저)

시험기간에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마시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고카페인 섭취가 위험하지는 않을까 의문이 들어 선택한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물부터 유제품, 화장품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책에 소개된 유해 화학 물질들 중에 제가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쓰인 재료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치약조차도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를 찾아보았더니 수은을 포함한 아말감이 유럽에서는 금지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가 화학 물질 노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치의학에서도 화학 물질에 대한 연구를 폭넓게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 몸에 무해한 화학 물질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치의학대학원에서 구강에 덜 해로운 제품과 재료에 대해 연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 데카메론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저)

코로나19로 등교가 미뤄지고 평범한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끼는 와중에 뉴스에서 코로나 위험 지대로 자원하여 나서는 의료진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료진 분들을 보면서 만약 제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 고민하는 과정 중 이 책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의료와 공동체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찾아오는 주기가 짧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책에서 논의하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두 관점에서 생각해본 결과 저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려면 타인의 이익과 공공선과의 조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책을 통해 의료계에서의 인문학, 사람을 위한 학문이 중

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치의학과에 진학한 후에도 인문학을 꾸준히 공부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의료인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③ C 학생 (2.18순위)

i) 교과 성취도

이수단위 139 | 평균재적인원 321

이수 교과	과목 수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4	1.47	1	2	1
영어	5	1.17	1	1.5	1
수학	6	1	1	1	1
사회	3	1.37	1.5	-	1
과학	8	1.37	2.1	1	1.33
예술 · 체육	5	-	-	A	A
생활 · 교양	4	-	P	P(1.75)	P

- 사회 이수과목 : 여행지리
- 과학 이수과목 : 물리학 I, 화학 I, 화학 II,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생활과학

ii) 고교 공통정보 요약

- 서울 소재 자사고

iii) 교내 수상

○○ 보고서 평가(화학부문) 최우수상(1위)	2019.12.30.
수학문제해결경루기 동상(3위)	2020.07.10.
생명과학올림픽 동상(3위)	2020.07.14.

iv) 자기소개서

1. 학업노력 및 학습경험

[학교생활기록부 발췌]

- 의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으로 삼각함수와 푸리에 변환이 있으며 이것이 뇌파와 심장의 전파 파동, 청력검사에 활용됨을 설명함. 또한 초음파 영역에서의 음향 공동현상을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을 활용하여 종양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에 대하여 소개함. 발표를 준비하면서 수학적 모델링이 의학에 적용되어 수학이 의학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의학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함
- 우리나라 의학의 역사는 어떠한지에 대한 호기심과 의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한국의 의학사'라는 탐구활동을 함.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학 관련 정책과 의료기관을 조사하며 우

리나라 의학사의 큰 흐름을 연구함. 이를 통해 서양의학에 가려진 우리 의학의 역사를 알게 되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고도성장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의학이 겪어온 변화 속에서 당면한 의료문제의 근원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음

- 매우 뛰어난 수학실력을 바탕으로 미적분의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면서 미분방정식과 푸리에 변환에 대해 심화 탐구함. 전염병 예측모델로 사용되는 SIR모델에서 각각의 변수와 변수의 변화율이 갖는 의미를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해 알아보고 SIR모델로 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분석해보고 실제 자료와 비교해봄. CT에서 X선을 통해 얻은 사이노그램을 영상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적분과정에 대해 탐구하면서 푸리에 변환을 탐구해보고 그 원리를 이해함
- 체외 충격파 쇄석기의 원리에 대해 알아봄. 그 원리에 활용된 타원의 성질을 정리함. 치과에서 사용하는 타원형 반사경에도 타원의 수학적 성질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었음. 이러한 특징이 일반 조명과는 달리 빛이 구강 내부만 비추어 환자와 치과의사의 눈부심을 제거한다는 것을 확인함. 구강용 3D스캐너의 활용방법에 대해 탐구함. 위생과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유용함에 대해 알게 됨. 치아를 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간좌표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임을 알고 기하과목에 대한 흥미를 더해감
- 반응속도와 촉매 단원에서 1차 반응의 반감기 개념을 확장시켜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핵의학 분야에 대해 문헌 조사를 함. 이 과정에서 해부학적 이상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몸의 이상 징후를 진단할 수 있는 핵의학의 매력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됨
-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는 것을 보고 구호흡이 구강 구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구호흡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치료법'을 주제로 탐구하였음. 구호흡의 정의와 구호흡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 면역력, 산소섭취량, 아데노이드 얼굴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구호흡 개선 방안으로 교정치료, 근기능 치료훈련, 부테이코 호흡법 등을 조사하였음
-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생명과학과 의학에 관련된 사회 이슈를 다각도로 탐색해 봄.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징을 알아보고 진단 기술 중 RT-PCR에 대하여 집중 조사함. 또한 효소 저해제, 마취제 등 의학에 사용되는 약제 종류를 조사하기도 하고, 의학과 치의학에 4차 산업 혁명의 흐름이 미칠 영향도 고찰해보았음
- 3인 1팀을 이루어 선배들의 연구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최종적으로 '대체당의 설탕 대체 가능여부 탐색'을 진로탐구활동 연구 주제로 결정함

[자기소개서 발췌]

수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조사하던 중 미분방정식을 통해 생물학적 현상을 수학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접하고, 수학적 모델링을 해보는 탐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수학 시간에 생체 시계의 음성 피드백 모델에서 피리어드 단백질의 억제물질과 활성화제의 변화량을 수식으로 나타낸 과정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그래프가 24시간 주기로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찾음으로써 생체 시계의 원리를 규명한 사실을 접하고 미분방정식을 통해 생물학적 난제를 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학 시간에 혈액 완충계에 대해 조사하면서 직접 완충 기전을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혈액에 수소 이온이 공급되고 수소 이온이 탄산 이온으로 바뀌며, 탄산이온이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폐를 통해 빠져나가는 과정의 속도를 각각 설정하여 세 변수의 변화량을 미분방정식으로 세우고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pH가 균형을 이루는 원리를 수학적으로 확인해보았습니다. 또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를 가정하여 속도를 조절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보면서 수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전염병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약자, 감염자, 회복자의 변화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SIR모델에 대해서 조사해보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모델인 SIR모델에서 제가 생각한 다른 변수를 추가하면서 식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해보고, 확장된 SEIR모델, SEIRS 모델 등과 비교해보았습니다. 면역을 얻게 되거나 재발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같은 변수를 생각해보았는데 신생아가 일시적으로 면역을 갖게 되는 경우 등 생각 못했던 변수가 많이 존재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변수를 포함시켜 현실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수학적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 의미있는 활동

교내 아카데미 활동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기초과학을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유전자의 일부분을 인슐린 유전자와 같이 유용한 유전자로 대체하여 유리한 형질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접하고 나서 반대로 우리 몸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만을 잘라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치료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HIV 바이러스의 수용체 유전자인 CCR5 제거를 통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와 같이 이미 결정된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꼭 염기서열을 조작해야만 질병의 발병을 막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져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 유전자 발현 방법을 바꾸는 후성유전학의 관점에서의 접근도 고민해보았습니다. DNA의 메틸화와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적 요인에 좌우되기 때문에 환경과 생활습관 등이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천적인 영향이 새로운 형질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획득형질 유전을 주장하는 용불용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질병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면 질병이 발현되기 전에 질병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질병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친구들을 보며 산성음료가 청소년기 치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시기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졌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충치는 세균을 매개로 발생하지만 치질 손상의 또 다른 원인인 치아 부식증은 산과의 직접 접촉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치아 단계별로 산성음료가 치아 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문헌에서 본 전자현미경이나 경도계를 사용하는 방법 대신 무기질 성분을 측정하는 물의 경도 측정 방법에 착안해 치아를 담근 용액에서 킬레이트 적정 실험을 통해 칼슘 성분을 측정했습니다. 지시약의 색 변화 시점을 정확히 관찰하기 어려워 반복 실험을 하였고 EDTA의 용해도가 낮아 염기성 용매를 사용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험 계획을 수정해나갔습니다. 유치, 미성숙 영구치, 영구치를 구별해 실험을 하였는데 생수보다는 탄산음료에서 칼슘 용출량이 많았고 또한 미성숙 영구치에서 가장 칼슘 용출량이 많았는데 유치와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또 실험에 사용된 음료의 적정산도를 측정해 완충능을 알아봄으로써 산도와 적정산도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실험은 구강 내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타액의 재광화나 자정작용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유의미한 통계를 위한 실험 결과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시약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칼슘을 침전시켜 측정하는 방법에도 고민해보았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주제에 대해 나만의 방법으로 실험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3. 학교생활 사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배려와 협력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세컨드에 배정받아 멜로디를 연주하지 않는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합주 연습을 하면서 우리의 소리 덕분에 음악이 더 풍부해짐을 느꼈고 어느새 하모니에 몰입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휘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리에만 집중하여 불협화음을 냈던 경험을 통해 앞에서 이끄는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전체가 잘 나

아갈 수 있게 밀어주는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해서 다른 소리를 존중해 주고 그 소리에 나를 맞추는 과정에서 협력의 정신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을 연주회를 위해 평소에는 점심시간에, 여름방학에는 2박 3일의 캠프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도 들곤 했지만 음악으로 정서적인 안정감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고 연주회를 마친 후 벅찬 감동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체력이 모든 일에 기본이 된다 생각해 교내 배드민턴 대회에 단체전으로 출전하였습니다. 모두 같이 하는 연습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서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등교 전 새벽시간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친구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행평가를 위해 저에게 배드민턴 리시브를 부탁하는 친구들이 있어 친구들의 연습을 도와주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재능을 나눴다는 생각에 뿌듯하였고 덕분에 저의 실력도 늘어 대회 준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조원들에게 이야기하며 부탁하기 미안해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리시브를 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원들은 흔쾌히 수락하였고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조원들끼리도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대회에서 1등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긴장되고 힘들었지만 재능을 나누는 일이 큰 행복을 가져다줄 줄 깨달았고 앞으로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4. 독서활동

동물 권리 선언 (마크 베코프 저/윤성호 역)

반려견을 키우면서 중성화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려견과 가족 모두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제목을 보면서 당시의 선택이 정말 반려견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의 편의를 위한 동물실험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생명 구제를 위해 동물실험은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고통과 더 나은 생활환경 등 동물들의 생명 존중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실험을 통한 결과가 동물들의 타의적 희생으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않고 미안함과 감사함을 갖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코에 빨대가 박혀있는 바다거북이의 사진을 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동물들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고 생태계를 위한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을 쫓는 아이 (할레드 호세이니 저/왕은철 역)

제목의 연을 쫓는다는 의미가 무엇일지 궁금해져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은 주인과 하인 관계에 놓인 두 아이 아미르와 하산의 우정과 방관에 따른 배신, 그리고 뉘우침을 통한 성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 없이 자기합리화를 하는 아미르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르의 그런 모습이 평소 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고, 결국 모든 사람이 은연중에 지니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책 속 아미르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다가 너무 늦게 자신의 죄를 반성하였는데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를 구하는 자세 또한 인간관계에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에 대해 적당히 눈 감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최재천 저)

동물 행동학의 권위자인 저자가 쓴 책임을 알게 되어 이 책을 집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의 여러 생태를 묘사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새끼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는 염낭거미나 동료들에게 피를 나누어주는 흙혈박쥐 등 이전에는 선입견을 갖고 꺼려졌던 동물들이 '알면 사랑한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알고 나서 바라보니 이 책의 제목처럼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동물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더 작게 보아서 교실 안에서도 친구들끼리 경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기적인 고민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도 점차 세분화되면서 서로 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에서 다른 분야와의 연계는 의사가 진료해야 하는 것이 병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이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구절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입만 보지 않고 구강 건강을 통한 전신 건강까지 생각하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습니다.